

앞선 책과 뒤쳐진 책

일본인 승려 엔닌(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하면, 일반독자에게는 낯설지 모르지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와 더불어 동양의 3대 여행기로 꼽히는 이 방면의 고전이다. 저자 엔닌의 당나라에서의 행적을 서기 838년 6월13일부터 847년 12월14일까지의 일기체로 적고 있는 이 책은 9세기 중엽 동양3국(당나라·일본·신라)의 관계, 정치나 외교, 민간 풍속 등을 알리는 주요한 사료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장보고의 「신라방」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어 더욱 주목을 끌기도 하는 책이다.

그 「입당구법순례행기」가 얼마전 신복룡교수(건국대)의 번역으로 정신세계사에서 출간됐는

데, 재미있는 것은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본으로 삼아 개구성한 미국의 동양학 연구가 라이사워교수의 「Ennin's Travels in Tang China」의 번역본 「중국중세사회의 여행」이 뒤이어 한울에서 출판됐다는 점이다.

원전과 원전의 해석판이라는 점에서 이 두 책의 성격은 물론 다르다. 그러나 평범한 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읽기에 어렵고 쉽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의 차별상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책은 상업적으로 서로 부딪치기 쉽다. 어느 한 책의 선택이 다른 한 책의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출판사쪽에서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간행시기에서 뒤쳐진 한울의 「중국중세사회의 여행」 보도자료를 보면 “이 책의 원자료인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정신세계사에서 같은 제목의 책으로 최근 출간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책을 뒤늦게 펴내는 경우 마치 자기네 책만이 최초 최선의 것인양 먼저 나온 책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아예 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게 출판계의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허무는 정직성을 보여주고 있어 반갑다.

올초 서광사에서 출판된 바이세델의 「철학의 뒤안길」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이 책의 보도자료에도 똑같은 텍스트를 번역한 분도출판사의 「철학의 뒷계단」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 특히 번역물의 경우, 앞선 번역본의 존재를 무시하기보다는 이처럼 사실을 명시하고 그 차별상을 정당하게 부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다. —강철주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루마니아 태생의 저명한 종교학자이자 예술가, 작가인 멀치아 엘리아데의 「상징, 신성, 예술」(박규태역 서광사)(*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은 종교와 예술의 상호관계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될 만한 글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의 구조’에는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지성간의 상호의존성에 담긴 엘리아데의 변증법적 세계가 자서전적으로 그려져 있어 흥미를 끈다. 다음에 인용 소개한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앵글로-아메리카권의 학문적 분위기에서는 어떤 학자가 동시에 소설가로서 알려지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체로 시의 경우는 용납이 되었고 별 문제가 안되었다) 그래서 신실증주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이어 교수- ‘제2의 홉스’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현존 철학자인-는 사르트르나 그밖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대해 「마인드」(*Mind*) 지에다 기고한 강력한 비평의 제목을 ‘소설가로서의 철학자들’이라고 붙임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중략)

그러나 세기의 전환기에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나는 과학적 탐구와 예술, 특히 문학활동이 양립될 수 있다고 여기는 문화적 전통에 속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루마니아 학자들 가운데 몇몇 독창적인 이들은 동시에 성공적인 작가이기도 하다.……어쨌든 나는 곧 그와 같은 이중의 천직이 내 운명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나는 내가 아무리 동양학연구와 종교학에 심취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문학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예감했다. 내게 소설쓰기- 단편소설과 중편소설, 그리고 장편소설 등-는 ‘전공 이외의 장기’ 이상의 것이었다. 소설쓰기는 나의 정신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노이로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1949년 6월21일에 파리에서 나는 「샤머니즘」(*Chamanisme*)의 한 장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도 나는 불현듯 이전처럼 소설을 써야겠다는 충동에 빠졌다. 이번에도 역시 나는 이를 뿌리쳐 보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나는 즉각 루마니아어로 문학작품을 쓴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이라고 자문했다. 왜냐하면 소설을 쓴다 해도 그걸 루마니아에서 찍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파리에서 내자니 번역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또 무엇보다도 출판해달라고 편집자를 설득하기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해 여름에 낸 「저널」(*Journal*)에서 나는 소설 「금지된 숲」(*The Forbidden Forest*)을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에 대해 적은 적이 있다. 결국 얼마동안 나는 낮시간에는 「샤머니즘」 집필 작업을 계속하면서 밤시간을 이용하여 소설을 쓸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두 세계, 즉 학문연구의 세계와 문학적 상상력의 세계를 동시에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교학자이자 동양학 연구자인 내게 소설쓰기는 학문적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매력적인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참으로 종교학자는 소설작가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여러 상이한 구조를 지닌 성스럽고 신화적인 공간과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진 시간, 그리고 특별히 기이하고도 낯설며 수수께끼 같은 무수한 의미의 세계와 조우하게 된다. 모든 문학작품은 제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창조한다. 그런데 문학적 수단을 통한 이와 같은 상상적 세계의 창조는 신화적 과정에 비견될 만하다. 왜냐하면 어떤 신화들간에 창조이야기와 연관됨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 세계·생명·동물·인간·사회제도 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화와 문학창작간의 특정한 연속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양자 모두 새로운 창조(또는 ‘드러남’)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건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학 창작은 지식의 도구로 간주될 만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일상 세계와 대비되는 다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또한 종교 현상에 나타난 의미의 세계와 문학 작품에 표현된 의미심장한 메시지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먼저 모든 종교 현상은 성현, 즉 성의 현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성현은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속의 사물이나 행위를 성스러운, 곧 의미있고 소중하며 범례적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킨다. 달리 말하자면, 성은 성현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속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하다.(특정한 종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이 속 안에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의 경우에서도 의미있고 범례적인 인간적 가치들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따라서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과 사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의 보편적이고도 범례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한다는 것은 종교 현상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작업에 비견될 것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95호 / 1991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憲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부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枚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亨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淑淑	李環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觀	李重漢
李延載	林煒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暎	鄭晉錫
鄭鍊弘	曹南鎭	曹大鉉	鄭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저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